

#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3-2】

2013. 3. 5.

## 알제리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 및 진출시 시사점

### 목 차

I. 알제리의 석유·가스 산업 현황 .....	1
II. 알제리의 석유·가스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 .....	3
III. 석유·가스 부문 투자유치 확대 및 투자여건 개선 추진 .....	5
IV. 외국인투자환경의 악화 :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의 위협 .....	7
V. 향후 전망과 시사점 .....	8

### 국별조사실

작성: 선임조사역 오경일 (3779-5720)  
oki1122@koreaexim.go.kr

확인: 실 장 이한구 (3779-5702)  
hklee@koreaexim.go.kr



■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표적 산유국인 알제리는 외국인투자의 부진으로 인해 최근 석유·가스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석유·가스법의 개정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 1월의 천연가스 생산시설 인질극 참사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의 위협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하에서는 알제리 석유·가스 산업의 투자환경을 분석하여 향후 전망 및 우리기업 진출시 시사점을 제시코자 함.

## I. 알제리의 석유·가스 산업 현황

### □ 아프리카 대륙에서 원유 4위, 천연가스 2위의 확인매장량 보유

- 북아프리카 지역<sup>1)</sup>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은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수단 4개국이나, 그 중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알제리와 리비아만이 세계 화석연료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확인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
- 알제리의 2011년 말 기준 원유 확인매장량은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0.7%에 해당하는 122억 배럴로, 이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 4위이자 세계 17위의 규모임. 한편 2011년 말 기준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2.2%에 해당하는 4.5조 입방미터로, 이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 2위이자 세계 10위의 규모임.
-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리비아, 나이지리아, 앙골라, 알제리의 순위이며, 천연가스는 나이지리아,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의 순위임.
- 리비아가 2011년의 내전 및 가다피 정권 붕괴와 임시정부 수립 등의 혼란으로 석유·가스 산업에 심각한 침체를 겪은 반면, 알제리는 같은 시기에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번진 “재스민 혁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석유·가스 산업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양상을 유지해 왔음.

1) UN의 지역 구분에 의하면, 북아프리카(North Africa)는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수단 6개국 및 서사하라(Western Sahara, 미승인 국가)로 구성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와 달리 아랍 민족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수단 제외) 이슬람교를 신봉하며 아랍어를 사용하는 등 중동(Middle East) 지역과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함.



< 표 1 > 2011년 말 기준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원유 확인매장량

국가명	매장량(억 배럴)	전 세계 매장량 비중
리비아	471	2.9%
<b>알제리</b>	<b>122</b>	<b>0.7%</b>
수단(남수단 포함)	67	0.4%
이집트	43	0.3%

자료 : British Petroleum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2.

< 표 2 > 2011년 말 기준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국가명	매장량(조[兆] 입방미터)	전 세계 매장량 비중
<b>알제리</b>	<b>4.5</b>	<b>2.2%</b>
이집트	2.2	1.1%
리비아	1.5	0.7%

자료 : British Petroleum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2.

## □ 원유·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반적인 감소 추세 지속

- 일일 원유 생산량은 2009년 181.6만 배럴, 2010년 176.2만 배럴, 2011년 172.9만 배럴로 계속 감소 추세를 나타냄. 연간 가스 생산량도 2009년 796억 입방미터, 2010년 804억 입방미터, 2011년 780억 입방미터로 대체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Tin Fouye, Alrar, In Salah 등의 대규모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부 지역으로 수송되어 가스 상태로 내수·수출용으로 공급되는 한편, 액화천연가스(LNG)로 변환되어 LNG 운반선을 통해 수출되고 있음. 가스 수출 물량의 약 90%는 유럽 국가들에 집중되고 있음.

< 표 3 > 2011년 말 기준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국가명	원유(만 배럴/일)	천연가스(억 입방미터/년)
<b>알제리</b>	<b>172.9</b>	<b>780</b>
이집트	73.5	61
리비아 <sup>2)</sup>	47.9	41
수단(남수단 포함)	45.3	N.A.

자료 : British Petroleum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2.

2) 리비아는 2011년 내전 발발의 여파로 일일 원유 생산량이 2010년 166만 배럴에서 2011년 48만 배럴, 연간 천연가스 생산량이 2010년 168억 입방미터에서 2011년 41억 입방미터로 급감하였음.



- 알제리의 에너지 산업은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Sonatrach의 주도하에 있으며, 다국적기업들의 참여 확대로 신규 유전 및 가스전 탐사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특히 2000~06년에 걸쳐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2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영국 BP, 노르웨이 Statoll, 스페인 Repsol 등 다국적기업들의 투자가 140억 달러 규모에 달했음.
- Sonatrach는 이탈리아 Eni社와의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2013년 2월 수도 알지예의 남쪽 1,000킬로미터 지점의 Menzel Ledjmet East 가스전에서 가스 생산을 개시하였음. 동 지역에서는 일일 900만 입방미터의 가스를 처리하는 한편, 일일 1.2만 배럴의 액화석유가스(LPG)도 생산할 예정임.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등 대부분의 주요 유가전망 기관들은 세계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 오일샌드(oil sand) 등 非전통 석유 공급 증가 등에 따른 유가 약세를 예상하여 2013년 평균 유가를 전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알제리를 위시한 MENA 지역 국가들의 석유·가스 산업 투자유치 증대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II. 알제리의 석유·가스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

### □ 신규 투자의 부진으로 원유·천연가스 생산 감소

- 근래 알제리의 원유·천연가스 생산량은 매년 감소 내지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여타 산유국들에 비해 불리한 외국인투자여건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해져 노후한 생산설비의 교체 및 신규 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기존의 가스전을 대체할 신규 가스전의 발견 또한 알제리 석유·가스 산업의 긴급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음. 2005년 유전-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인·허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인 Alnaft가 설립되었으나, 외국인투자자에 불리한 투자조건과 유가 하락세로 인한 국제 석유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실제 개발을 위한 탐사계약 성사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2011년 3월 Alnaft가 주관한 제3차 석유·가스 탐사 및 채굴권 입찰 결과 10건 중 2건에 대해서만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그 중 1건만이 다국적 석유메이저와의 계약이었음.



- 앞서 Alnaft가 처음으로 주관한 2008년의 제1차 입찰에서는 16건 중 4건, 2009년의 제2차 입찰에서는 10건 중 3건만 계약이 성사되는 등 알제리의 석유·가스 탐사 및 채굴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표 4 > 알제리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추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원유(천 배럴/일)	2,016	1,993	1,816	1,762	1,729
가스(억 입방미터/년)	845	848	796	804	780

자료 : British Petroleum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2.

- 2011년 3월 스페인으로 연간 8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수출하는 파이프라인이 가동을 시작했으며, 2014년까지 Skikda와 Arzew에서 연간 920만 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출하는 터미널이 가동을 개시할 예정임에 따라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한 신규 가스전 개발이 더욱 시급함.

#### □ 정유시설의 부족 및 노후로 석유제품 생산도 감소

- 원유·가스는 물론 석유제품(refined petroleum)의 생산도 부진을 겪고 있어, 현재 일일 약 1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음에도 가솔린 등 석유제품 무역수지의 적자가 계속 증가하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은 정유시설의 부족 및 노후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함.
- Sonatrach는 2012년 초에 알제리 국내의 석유제품 수요 중 약 230만 톤(경유 200만 톤 및 가솔린 30만 톤)을 수입으로 충당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이후 약 300만 톤으로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였음.

#### □ 2006년 개정된 석유·가스법, 초과이윤세 부과로 외국인투자 유치 저해

- 2006년 7월 개정된 석유·가스법은 알제리의 석유·가스 상류부문<sup>3)</sup>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부진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개정된 법은 탐사·생산 계약에서 최소 51%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Sonatrach가 취득하고, 북해산 브렌트 원유의 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총생산량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50%까지 초과이윤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등의 조항을 포함시켰음.

3) 석유·가스 산업의 탐사, 개발, 채굴 부문을 상류 부문(upstream sector)이라 지칭함. 아울러 석유·가스 산업의 수송, 정제, 판매 부문을 하류 부문(downstream sector)이라 지칭함.



- 이로 인해 알제리의 석유·가스 산업정책은 잠재적 생산능력의 극대화보다는 자원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외국인투자의 억제 및 미래를 위한 원유·가스 매장량의 보존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아울러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절의 유습인 뿌리 깊은 관료주의 및 그로 인한 각종 규제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된 행정업무의 처리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Ⅲ. 석유·가스 부문 투자유치 확대, 투자여건 개선 추진

#### □ Sonatrach, 정유능력 확충과 탐사 확대 등의 5개년 개발계획 발표

- Sonatrach는 2012년 11월 초 향후 5년에 걸쳐 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석유·가스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은 5개의 정유공장을 증설하고 가스전 탐사작업을 가속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의 수행에 따르는 각종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동사의 2013년 예산 지출은 2012년의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50% 증가할 예정임.
  - 앞서 2012년 5월 하순 예산규모 682억 달러의 개발계획을 발표한 Sonatrach가 불과 6개월 만에 예산규모를 17% 이상 증대한 보다 야심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은, 원유·가스 생산량이 잠재생산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알제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동 계획의 핵심은 장기적인 석유제품 내수 충족을 목표로 14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유공장 신설 프로젝트임. 2012년 10월 알제리 의회를 통과한 실행계획에 의하면 Biskra, Tiaret, Ghardaia, Hassi Messaoud 지역 및 지중해 연안 항구 부근에 5개의 정유공장이 신설될 예정임.
  - 아울러 기존의 5개 정유공장 중 4개의 생산설비 교체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며,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연간 석유제품 생산량이 2,700만 톤에서 3,0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상류 부문 개발계획에서는 가스 생산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질 계획임. 현재 세계 4위의 가스 수출국인 알제리는 Skikda와 Arzew의 가스 액화시설에서 생산된 액화가스를 3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스페인(모로코 경유 및 스페인 직통)과 이탈리아(튀니지 경유)로 수출하고 있음.





- 국내 전력수요의 급증은 발전연료로서의 석유·가스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석유·가스 수출 감소를 초래하고 있음. 2012년 여름 예비전력 부족으로 전국적 정전 사태를 경험한 알제리 정부는 가스 화력발전소 발전용량을 향후 2년 내에 2,000MW 증대하기 위한 발전설비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기존 가스 화력발전소의 설비 증설 계획으로 가스의 국내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한편, 이로 인해 가스 수출은 2017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으로 Sonatrach는 예상하고 있음. 이에 알제리 정부는 동국의 석유·가스 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2014년까지 역외 시추(offshore drilling)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표 5 > 알제리의 원유 및 천연가스 내수 소비량 추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원유(천 배럴/일)	286	309	327	327	345
가스(억 입방미터/년)	243	254	272	263	280

자료 : British Petroleum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2.

- 알제리 정부는 셰일 가스(shale gas)의 개발에도 눈을 돌려 이탈리아 Eni, 영국/네덜란드 UK/Dutch Shell Group, 캐나다 Talisman Energy와 셰일 가스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음.
- 알제리 정부는 자국의 셰일 가스 매장량을 약 17조 입방미터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알제리의 가스 확인매장량 4.5조 입방미터의 약 3.8배에 해당하는 규모임.

## □ 2013년 석유·가스법 재개정 : 초과이윤세 폐지 등 투자여건 개선

- 알제리 의회는 2013년 1월 석유·가스법(hydrocarbon law)의 새로운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기업에 대한 초과이윤세 부과 폐지 및 석유·가스 부문의 생산 프로젝트를 통해 채굴된 원유·가스의 판매액 전체가 아닌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로, 이는 신규 유전·가스전 탐사 및 개발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촉진을 위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오일 샌드(oil sand)와 셰일 가스(shale gas) 등 비전통적 석유·가스의 개발, 소규모 유전·가스전 개발, 역외지대 포함 미개발 지역의 유전·가스전 개발, 지리적으로 복잡한 지역 및 인프라 부족 지역의 유전·가스전 개발 등에 세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음.



- 아울러 Sonatrach의 조사 및 탐사 부문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동사에 알제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송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권을 부여하였으며, 정유 부문은 Sonatrach와 그 자회사들의 지분이 최소 51%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IV. 외국인투자환경 악화 :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의 위협

### □ 내전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지속

- 1991년부터 약 10년간 알제리 정부와 다양한 이슬람 무장세력간에 내전이 계속되어 경제발전을 크게 저해하였음. 1999년 4월 당선된 Abdelaziz Bouteflika 현 대통령은 이슬람구국전선(FIS)과의 협상을 재개하고 국민 대화합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00년 1월 1일 FIS는 공식으로 해체하였음.
- Bouteflika 대통령이 2006년 제2차 사면조치 후 테러 잔당 토벌을 강화하자, 과격파 무장이슬람그룹(GIA, Groupe Islamique Arme)은 Salafiste 선교전투그룹(GSPC), 마그레브 알-카에다(AQMI) 등으로 명칭을 바꾸어가며 동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테러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 천연가스 생산시설 인질극 참사,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

- 마그레브 알-카에다는 지난 1월 16일 알제리 동부의 In Amenas 가스전에서 Sonatrach, BP, Statoil이 공동 운영하는 천연가스 생산시설을 급습하여 외국인 및 현지인 근로자 800여명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였음.
  - 이번 인질극은 프랑스가 말리 북부를 장악한 이슬람 반군에 대한 공습을 개시하면서 알제리가 프랑스 공군에 영공을 개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자행되었음. 이에 알제리 정부는 대대적 인질 구출작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강경 진압으로 외국인 인질 39명 포함 최소 6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를 빚었음.
- In Amenas 가스전은 알제리 가스 생산량의 12% 및 가스 수출의 18%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가치는 연간 39억 달러에 이룸. 알제리 에너지광물부의 Youcef Yousfi 장관은 이번 인질극 사태로 인한 가스전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밝혔으나, 이탈리아와 알제리를 연결하는 가스관의 가스 유량은 테러 후 첫 번째 금요일에 6,200만 입방미터로 평소의 7,500만 입방미터보다 감소하였음.





- 이번 참사는 내전 사태 이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알제리 국내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문제와 겹쳐 알제리의 치안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석유·가스 부문에 신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알제리 정부의 노력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분석됨.
- 나이지리아의 경우처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유전지대를 습격하여 현지 투자기업의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정부측에 몸값 지불 등 협상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뿌리를 내릴 것을 우려한 외국기업들이 알제리에 신규 투자를 꺼리는 것은 물론 기존의 투자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BP는 인질극 참사 후 직원들을 알제리에서 철수시켰으며,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다른 외국기업들도 테러 조직이 출몰하는 사막 지대의 유전과 가스전에서 외국인 직원들을 철수시키는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알제리 정부가 51%, 카타르의 Industries Qatar와 자회사 Qatar Steel이 49%의 지분을 투자하는 32억 달러 규모의 철강-광산-발전 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는 금번 In Amenas 인질극 참사의 여파로 주주 회의가 전면 취소되었으며, 당초 2월 중으로 예정되었던 동 프로젝트의 주요 공사를 위한 입찰일자도 3월 말 이전에 확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현지에서는 전망하고 있음.
- 동 프로젝트에 의한 복합단지는 알제리 동부의 Jijel 항구로부터 40km 지점에 위치한 Bellara 산업지대에 건설될 예정으로, 카타르 석유산업 하류 부문의 주요 사업자이기도 한 Industries Qatar는 이미 동 프로젝트에 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음.

## V. 향후 전망과 시사점

### □ 외국기업의 지분을 제한 유지로 외국인투자 촉진효과에 의문

- 발전연료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석유·가스의 국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유 부문의 설비 확충이 시급함에도, 개정된 석유·가스법 역시 정유 부문의 외국인투자 지분을 상한을 49%로 계속 제한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의 활성화 효과가 의문시됨.



- 분석가들은 케냐 등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유전이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인 2~3년 전에 알제리가 석유·가스법을 개정했어야 함에도 시기를 놓쳤으며, 개정안의 내용도 여전히 외국기업의 지분을 제한을 두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충분히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 알제리의 석유·가스 생산 증대 가능성은 당분간 회의적

- 이처럼 개정된 석유·가스법의 외국인투자 촉진효과가 의문시됨에 따라, 알제리의 석유·가스 생산이 가까운 시일내에 증가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 상황임.
- BP, Total 등 외국 기업들은 이미 알제리에서의 석유 생산량을 자산 매각 또는 계약 만료시 재계약 포기 등을 통해 점차 줄여나가고 있으며, 신규 프로젝트의 유치 전망도 밝지 않아 알제리의 석유·가스 생산량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알제리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음.

#### □ 인질극 참사의 파급효과 : 재정수지 악화로 인프라 투자 위축 우려

-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인한 외국인투자 환경의 악화로 국가경제의 절대적인 부분을 의존하는 석유·가스 부문에의 외국인투자가 계속 부진할 경우, 이는 석유·가스 생산의 감소와 동 부문으로부터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제기됨.
  - IMF는 2012년 11월 알제리의 재정수입이 석유·가스의 생산 감소 및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해 축소되고 있으며, 알제리가 수지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유의 국제가격이 배럴당 121달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하였음.
- 재정수지 악화는 인프라 투자 및 사회보장 예산 축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며, 장기적으로는 연간 600만 톤의 곡물 수입재원의 부족으로 비화되어 식료품 가격 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식료품 가격 급등이 “재스민 혁명”의 원인 중 하나였음을 감안하면, 석유·가스 부문의 신규 투자 부진은 재정수지 악화로, 다시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이미 20%에 육박한 청년실업률과 결합하여 알제리 내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



## □ 잠재적 투자기업들, 테러로 인한 우발비용 발생 가능성 고려해야

- In Amenas 인질극 참사가 말리 내전의 여파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만연된, 한 국가의 분쟁상황이 인접국의 경제·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fire-next-to-door” 현상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의 준동과 더불어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본격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 알제리와 리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아프리카 석유·가스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는 말리, 니제르 등 인접국들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문제 해결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극단주의 조직들이 여러 나라들에 걸쳐 상호 협력하여 테러를 자행하고 있어 이의 대응에도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북아프리카 지역은 중동 지역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영향력이 강하여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없으며, 프랑스도 단독으로는 군사적 개입 능력에 한계가 있어 이 지역의 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현재 알제리의 석유·가스 부문에의 투자를 검토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알제리뿐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 일대, 나아가서는 말리, 니제르 등 인접국들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인한 우발비용 지출위험이 향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을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알제리의 경우 수도 알지예를 제외한 지역, 특히 사하라 사막 지대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을 표적으로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간간히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함.

작성 : 국별조사실  
선임조사역 오경일 (3779-5720)  
oki1122@koreaexim.go.kr